나도 지옥갈 수 있는 이유

(에스겔 32:1~32)

17.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19.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20.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임이여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도 지옥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도 지옥갈 수 있는 이유'
길거리 음식의 대표라면 붕어빵과 국화빵이 있습니다. 이 풀빵들이 구워질 때의 모습을 보면 먼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을 얹은 후에 다시 반죽을 부어줍니다. 그 후에 뚜껑을 닫고 익혀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틀을 뒤집어서 반대편을 익혀줍니다. 뒤집는 것이 늦으면 밑은 타고 윗부분은 설익게 됩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가는 이유도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앎과 동시에 믿지 않는 상태는 어떤 것인지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착각 속에 갖는 천국행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부르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준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조직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조직신학의 첫 번째 기능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복음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별의 기준은

조직신학자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신자들도 알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복잡한 신학적 용어로 설명되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입으로 이름을 부른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이유도 마음을 드리기 위해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드리는 것이 비밀인 이유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기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곳으로써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크기의 주머니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에 굉장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비어있음을 객관적 사실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무엇인가에 주게 됩니다. 마음을 주는 행위는 꼭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채우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구의 75억 인구가 온갖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단지 어떤 신에게 마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믿음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다른 대상들에 대한 믿음보다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의 마음도 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으니 우리 마음도 십자가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마음이 가야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우리 마음도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에 우리의 마음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줍니다.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남편을 통해 마음 채움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일에 마음을 줍니다. 돈을 벌어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에 마음을 줍니다. 자녀가 형통할 때에 마음이 채워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형통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이 마음 채움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행보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째로 받아들이시며 채워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서 마음이 하늘로 따라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구원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까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게 지음 받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서 다니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도 십자가를 매우 강조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말씀을 듣다보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주 심하게 아프셔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다가 사후세계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후세계를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

다. 다시 말해 기존의 기독교가 주장해온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으니 모른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아버지가 계신 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머물 곳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고 하면 믿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 적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괴팅겐이라는 도시에 가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 존재는 확실합니다. 괴팅겐에 가본 제가 괴팅겐 중앙에 그림형제의 동화 중에 나오는 거위 소녀 동상이 있다면 믿으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믿으면서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보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에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해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코 뜰 새 없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채워질 때에 만족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은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고, 그 채움의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남편의 사업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됨으로써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녀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자녀의 형통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녀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캘빈주의에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를 믿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으로써 때로는 절뚝거리고 넘어지더라도 종국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의 보좌 우편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떠나야만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대상들로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이 땅에서 열방에 대해 일어날 심판과 참혹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존에 살펴보았던 앗수르나 시돈 등도 언급되지만 낯선 나라들의 이름이 나타나며 동시에 지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지옥은 구약의 언어로는 음부 스올 구덩이 지하로 표현되었습니다. 땅에서 받았던 심판의 예언이 사후세계까지 연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됩니다.
1절을 보면 우선 이 예언을 받게 된 시기가 명시됩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뒤 1년 8개월쯤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에서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열방이 이 땅에서 멸망하고 사후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원인입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20절을 보면 열방이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리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겁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겁주는 모습이 2절에서 사자와 악어로 비유됩니다. 이 말씀은 원리적으로 보자면 해당되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의 하반부를 다시 짚어봅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

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어가 요동치며 강바닥의 진흙을 휘저어 물을 흐리는 장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구체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가 통과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한 사람을 통과해서 뻗어나갑니다. 마치 물이 수원지에서 발원할 때에 큰 상수도관이 있고 집집마다 작은 관으로 갈라져서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큰 상수도관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총리시절을 생각해봅니다. 천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바로는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나라를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모아 곳간에 모아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들자 그 곡식을 풀어 중근동 지역의 만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는 사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속해 있던 애굽의 풍요로움과 강성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사자인줄 알았던 자들이 악어였다고 합니다. 악어는 히브리어로 타닌으로써 바다 속에 살거나 땅 위에서 몸부림치며 돌아다니는 괴물을 가리키는 말로써 용이나 고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실 재료로 엄청난 복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아주신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나라와 사람에게로 분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모았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배분하였던 것처럼 뻗어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악어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퍼져나가야 할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처럼 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풍요로움으로 자신들의 마음만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갖는다고 하여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악어처럼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거두어들인 곡식을 풀지 않고 바로와 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중근동 지역에서 굶어죽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타래처럼 뻗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엉켜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악어가 아닌 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곡식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곡식을 사서 집에 가면 기다렸다 그것을 먹는 어린아이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실타래처럼 뻗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일어났고 이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다는 악어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헝클어뜨리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왕이나 귀족들에게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져있는 소중하고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몸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처럼 부귀영화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갖는다는 것은 곧 마음 채움을 위해 마음 안에 들여놓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소유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비록 몸뿐일지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마음 채움이 되실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이어 주님의 승천에 참여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마음이 따라 올라가 기어코 하나님 아버지를 갖는 것이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날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풍요로움을 마음대로 관장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몸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채움을 위해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지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자 몸도 남아도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남아도는 몸으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거지 나사로와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 채움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르는 것입니

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을 가질 때에 몸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주어진 것들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어처럼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본문 20절에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할례 하지 않는 자는 칼에 쓰러져 지옥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서 육체로부터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 채움을 위해서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을 붙잡다 보면 지옥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참 특이합니다. 애굽의 예언에 열방을 더한 이유는 이 예언이 천하 만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자가 되지 못하고 악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본 사자가 됨은 곧 하나 있는 몸조차도 남아도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으로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 채움을 기대하면서 살 때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려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용해야만 하는 몸으로부터 시작해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는 용도로 삼았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걱정하고 있다면 마음을 빚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이 해결되어야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마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가 없어져야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원수를 나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존재로 믿으며 원수가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발 붙잡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기를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더미 같은 빚도 남아도는 것이 됩니다. 빚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마음 채움이 되리라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건강에 대해서 죽는다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건강이 좋지 않은 몸은 남아도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의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용거리로 만들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감으로써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잘못 살아서 망가졌던 모든 삶의 열매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재료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채움을 기대하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지 않고 땅에서 헤맨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 채움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몸부터 시작해서 몸에 생긴 병도 짊어지고 있는 빚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이 보좌 우편까지 따라가는 것이 걸음 한 번 걷지 않고 손 한 번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서 지옥을 향해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 항상 하늘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